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세란	학번	■■■■■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바콜로드
파견대학	웨스트네그로스대학(WNU)	기간	2014. 12. 21(일) ~ 2015. 2. 14(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WNU의 옆에 위치한 IOL은 대학교가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그런지 어수선하고 기자재들이 널려있었지만 내부시설은 에어컨도 빵빵하고 와이파이도 되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OKEA또한 에어컨도 항상 가동중이어서 괜찮았습니다. 가끔 개미들이 책상에 기어다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는 아니어서 괜찮았습니다.</p>
수업	<p>처음에는 반을 나누기 위하여 테스트를 보는데 GRAMMAR, WIRTING, SPEAKING, VOCABULARY, PRONUNCIATION 다섯과목을 인터뷰와 필기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그 성적을 기준으로 4:1 그룹수업에서의 반을 나누게 됩니다. 오전에는 IOL에서 GRAMMAR(4:1), PRONUNCIATION(1:1), WIRTIN(1:1) 세 시간, 오후에는 OKEA에서 CONVERSATION(4:1), DISCUSSION(1:1), EXPRESSION(1:1) 3시간 하루 총 6시간을 수업을 듣게 되는데 한 곳에서 6시간 듣는 것보다 두 곳에서 나눠듣는 것이 지루하지도 않아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중간 점심시간의 공강이 3시간이어서 길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배부받은 책을 토대로 진도를 나가는데 자신이 원하는 수업의 방향으로 진행해나갈 수 있다는 점과 자신과 맞지 않는 튜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과제는 많은 편은 아니나 자신이 얼마나 공부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튜터들은 1:1로 한시간동안 매일매일 만나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고 다들 전문적이고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p>

Activity	<p>액티비티는 지도자가 먼저 건의하는 활동과 자신들이 가고 싶으면 건의하여 사람을 모아서 가는 활동,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는 활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보라카이 여행이 있는데 꼭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오래걸리긴 하지만 환상적인 해변의 노을과 화이트비치, 그리고 스쿠버다이빙, 스노쿨링, 제트스키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해산물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최고의 기억중에 하나로 남습니다. 그리고 루인스라는 폐허공전이 있는데 이 곳또한 건축이 멋있고 장엄하게 잘 지어져있어 사진찍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캐리비안 리조트나 엘피셔호텔수영장, 팔마스 등 주변에 가볼만한 곳은 한 번씩은 가보시는 것이 좋고 제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페인팅축제를 한다고 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보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처음 필리핀 땅을 밟게 되면 습하고 뜨거운 날씨에 당황했지만 지내다보니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서늘한 한국 여름의 날씨여서 커다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2~2월이 필리핀에서 지내기 좋은 날씨여서 해가 중천에 뜰 시간인 점심때 햇볕이 강하게 내려쬐는 것과 열대성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하루에도 수시로 예상치 못하게 자주 내리는 것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산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센트럴마켓이라고 쇼핑물가기전에 교통이 혼잡한 중심공원이 있는데 그곳은 소매치기가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가방을 항상 앞으로 매고 지갑이나 핸드폰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일찍 취침하는 문화여서 저녁 9시이후에는 길이 어둡으로 가득해서 바깥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사람들도 없어 위험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기숙사를 처음 본 느낌은 학교 기숙사보다 시설이 좋지 않고 너무 심플</p>

	<p>해서 걱정이었는데 살다보니 별다른 불편함은 없어서 지내기에 편안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3번 빨래, 2번 청소를 하우스키퍼가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가끔 개미떼가 출몰하거나 각종 벌레들이 나오고 샤워기 물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건의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마당에는 귀여운 고양이들과 개가 유유자적하게 걸어다니면서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야자수열매에 걸린 해먹은 마음의 안식처로서 아주 유용했습니다. 비록 땅에 도마뱀과 개구리와 모기와 개미들이 자주 보이지만 지내다보면 그것도 익숙해져서 괜찮았습니다.</p>
식사	<p>기숙사식당은 한식위주로 나와서 현지음식에 적응해야한다는 걱정은 없었으나 기름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김치는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매끼 과일을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가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좋았고 가끔씩 김치볶음밥, 스파게티, 떡국, 라면, 삼계탕들이 특식으로 나오는 날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학교급식이 맛이 없는 날이면 과일만 먹고 근처카페테리아로 이동하여 다른 음식을 먹거나 밖으로 나가서 튜터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맛집들을 투어하며 외부식당을 갔습니다.</p>
교통	<p>IOL을 가고 올때는 벤을 태워주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동할 때는 한국돈 160원 정도인 트럭뒷자석 같은데 창문없고 천장과 좌석이 있는 지프니를 타고 정해진 구간에서 타고 싶은 곳에서 타고 내리고 싶은 곳에서 말하고 내리면 돼서 이동하는데 문제점은 없었고 택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좌석을 결합한 트라이시클도 있는데 타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를 이용할 때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되는 데 한국버스처럼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이동중간에 텔레비전도 볼 수 있는 버스들도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 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1,281,28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생활비	약 183,000	
기념품비	약 100,000	
보라카이여행	약 250,000	
합계	약 1,814,280	

5. 출국 전 준비사항

환전은 달러로 가져와서 현지에서 페소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지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 수수료가 보통 6000원정도드니 달러로 바꿔오세요. 그리고 해외인출가능한 마스터카드를 챙기셔야 합니다. 휴대폰은 필리핀에서 현지유심으로 갈아끼고 25000원정도를 내면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필리핀떠나기전에 정지를 시키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하는 공간에서는 에어컨이 항상 빵빵하게 틀어져있기 때문에 긴 팔, 긴 바지 2~3벌 정도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반바지는 수업을 들을 시엔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근처 쇼핑몰을 가서 충분히 다 구매할 수 있으나 처음에 적당히 챙겨오는 것이 필요없는 지출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거울, 휴지, 슬리퍼, 샌들, 욕실화, 멀티탭, 드라이기, 욕실화 등과 각 종세면도구는 적당한 크기로 가져오시고 버리고 또 구매하시면 됩니다. 락커를 잠글 자물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 종이나 펜의 질이 낮으니 가게부나 영어공부할 공책 3권 정도와 자신이 쓸 펜도 챙겨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맬수 있는 작은 크로스백과 동전지갑은 필수중의 필수입니다. 노트북은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가끔씩 인터넷을 할 수있고 시간이 빌 때 영어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에 돌아갈 때 또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으니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달동안 튜터들과 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헤어질 때 소정의 선물과 편지들을 주고 받을 시에 줄 한국적인 음식(불닭볶음면, 고추장 등), 한국과자, 한국편지지, 한국화장품등을 챙겨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한 번 더 비행기를 타고 오는 네그로스섬의 작은 도시인 바콜로드에서의 어학연수는 해외경험자체가 처음인 나에게 잊지 못한 추억을 안겨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의 70년대 같은 모습에 낯설게 느껴졌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콜로드현지인들이 한국인들에게 호의적이어서 지나다니면 안녕이라고 먼저 인사해주고 물가도 싼 편이라서 비싼 음식들을 싸게 먹을 수 있고 전신마사지도 싸게 받을 수 있어서 적은 돈으로도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어 좋았고 또한 기숙사근처에 편의점이 있고 지프니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쇼핑몰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

필품이나 음식점찾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서 편했습니다. 교육은 처음에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만 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아무리 배워도 할 수 없었던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튜터들도 모두 자신의 과목에서 전문적이고 호의적이며 학생들을 배려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잘 맞았고 1:1 수업으로 인해 수업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서로의 감정도 공유하며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도 먹으러가기도 하고 놀러가기도 하며 모바일메신저로 연락도 주고 받아서 정이 너무 들다보니까 헤어질 때는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2달 동안의 어학연수는 시간이 너무 짧고 부족하단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어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다시 기회가 있다면 돌아와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보고 싶단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WNU대학옆에 위치해있어 대학교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 대학교의 축제도 같이 즐기는 좋은 경험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 보면서 후회없이 한국에 없는 음식들 다 먹어보고 유명한 장소, 경치좋은 장소도 다 다녀왔습니다. 바콜로드에서의 어학연수는 앞으로 잊지 못할 좋은 경험과 추억들을 남겨주었고 영어에 많은 흥미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주변 지인들이 바콜로드어학연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해먹에서</p>	<p>루인스</p>



팔마스수영장앞 노을



보라카이해변



튜터와 함께찍은 사진



튜터들과 단체사진